

1970~80년대 시흥지역 도시빈민 운동의 성장과 진화*

이동원**

초록 본고는 1977년 복음자리 마을, 1979년 한독마을, 1986년 목화마을로 이어진 시흥지역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의 성장과 진화 과정을 조망하였다. 이 운동은 서울의 과잉 도시화와 대규모 빈민 주거지 형성, ‘비가시화’ 방식의 졸속적 철거민 정책이 만들어낸 빈곤의 악순환에 대한 대안적 주거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주도했던 제정구와 정일우는 판자촌에서 가난한 이들이 서로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이자 인간성의 본질이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그러한 공동체와 인간성의 본질을 지키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철거민 집단이주와 정착지 형성에 투신했던 것이다.

비공식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었던 대부분의 도시빈민 운동과 달리 시흥지역의 도시빈민 운동은 종교계와 외원(外援)단체 등의 지원을 받으며 초기부터 일정하게 공식적 성격을 띠었고, 제정구와 정일우의 주도하에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집단적 정체성이 확장되었던 보기 드문 사례였다. 시기와 조건의 차이에 따라 세 마을의 ‘공동체성’ 형성 과정에는 차이가 있었고, 다양한 갈등 요소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들 세 마을 사이에는 철거민, 이주민이라는 정서적 공감대와 유대감이 작동했고, 주민들은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자리 공동체와 복음신협, 작은자리 회관을 구심점으로 점차 ‘하나의 지역 공동체’이자 도시빈민 운동, 시민운동의 ‘주체’로 진화해 갔다.

주제어 시흥, 제정구, 정일우, 도시빈민,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

* 본 논문은 2023년 11월 2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시흥시 인문도시사업단이 주최한 제 18회 인문주간 학술대회 “근현대 시흥의 변화와 발전”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1. 머리말

1990년대 서울의 대학가 주변에서는 관악구 봉천동, 서대문구 영천동과 홍은동, 마포구 도화동, 동대문구 청량리와 강북구 미아리 등 어디서나 쉽게 산비탈 길에 자리잡은 ‘달동네’ 판자촌을 접할 수 있었다. 철거와 재개발로 2000년대 모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메가시티’ 서울의 명암,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불평등의 적나라한 재생산 공간이 그곳에 있었다. 대학생들의 빈민연대 활동은 판자촌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공부방 활동부터 철거 용역과 맞서 싸우는 철거 반대 투쟁까지 다양했지만, 철거촌이 아파트 단지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이주비를 받고 또 다른 ‘달동네’를 찾아 떠나는 일을 되풀이해야 했다. 다음은 1994년 5월 9일 자, 『이대학보』에 실린 「나의 서울 답사기」의 일부이다.

이대 후문에서 독립문 쪽의 버스를 타면 금호터널과 사직터널을 고가도로가 연결하고 있다. 그 고가도로에서 버스의 오른쪽은 영천동이라는 지역이다. 지금 그곳은 아파트 공사를 위해 붉은 토양이 잔뜩 파헤쳐지고 중장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공사의 규모를 보아서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또 하나 늘어선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중략) 그곳에서 만났던 아주머니들은, 밝게 웃으며 장난치던 아이들의 모습은 영천동에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서도 그곳에서 찾을 수 없다.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다음 철거지역으로 지정된 또 다른 재개발지역뿐일 것이다. (중략) 서울시 재개발 계획에서는 재개발 지역의 영세민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개발 과정에서 영세민의 권리는 온데간데없다. 오로지 건설회사가 최대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30평, 최대 50평의 아파트를 짓는 길뿐이다. 이에 10평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 영세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자본의 논리에 어긋날 뿐이다. 그래서 철거

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철거민들이 몇 푼의 이주비를 받고 철거촌을 떠난다. 당분간 살기 위한 다른 철거촌으로...¹

도시빈민 문제와 운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종속이론의 영향 속에서 사회학계와 도시빈민 운동 활동가가 주도하면서 이루어졌다. 이효재와 허석렬은 제3세계 도시산업화 과정에서 빈곤과 저발전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실상을 소개했고, 정동익은 한국 계층구조 속에서 도시빈민의 형성 과정, 생활 실태, 취업 구조, 정부의 빈민 정책을 다루었다. 김영석은 도시빈민을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도시빈민의 개념과 현실, 운동을 정리했다. 조은과 조옥라는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를 통해 도시빈민의 생활상과 빈곤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조명했다.²

목동지구 택지개발로 1984년부터 철거민 투쟁이 본격화되자 제정구, 예수회 존 델리(John Vincent Daly, 이하 한국명 정일우로 통칭) 신부 등의 주도로 1985년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이후 천주교도시빈민회)와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가 탄생했다. 연구소는 1988년 도시빈민연구소, 1994년 한국도시연구소로 변화하며 1991년 지역운동 사례집, 『굴레를 깨고 일어서는 사람들』, 1998년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등을 출간했고, 1993년부터 학술지 『도시와 빈곤』을 발행하며 체계적 도시빈민 문제 연구에 나섰다.³

1 「나의 서울 답사기 <1> 커지는 도시-사라지는 도시」, 『이대학보』, 1994.5.19.

2 이효재·허석렬 편(1983),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김은실(1983), 「한국도시 빈곤의 성격에 관한 일 연구: 봉천동 무허가 거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정동익(1985), 『도시빈민연구』, 아침; 김영석(1989), 『한국 사회성격과 도시빈민 운동』, 아침; 조은·조옥라(199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 지역 현장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3 도시빈민연구소 편(1991), 『굴레를 깨고 일어서는 사람들: (빈민) 지역운동 사례집』, 도

그러나 1989년 노태우 정부가 25만호 영구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하고 1990년대 들어 철거민운동이 과도기적 모색기에 접어들면서 도시빈민 운동과 빈곤 재생산 문제에 대한 연구도 이전 시기에 비해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도시빈민 운동을 불온시해 온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도시빈민 운동이 비공식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⁴

그럼에도 2009년 ‘용산참사’가 상징하듯 도시빈민과 빈곤의 재생산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⁵ OECD의 2020년 한국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OECD국가 중 상대적 빈곤률 3위, 소득 불평등 7위로 대부분의 OECD국가보다 임금 격차가 크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미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불평등은 1인가구,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⁶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서울 및 특정 대도시 주택가격과 지가 상승은 양극화와 출생률 저하, 지방 소멸 등 한국 사회문제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⁷

시빈민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1998),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한국도시연구소; 신명호(2004), 「한국도시연구소의 역사」, 『도시와 빈곤』 71호, pp. 29-33.

- 4 김수현(1999), 「서울시 철거민운동사 연구: 철거민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3, pp. 215-2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009년 출간한 『한국민주화운동사』는 유신체제가 각 부문 민주화운동을 종교계, 언론·출판계, 지식인·문화예술인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및 민중운동으로 분류하고, 도시빈민운동을 노동운동, 농민운동과 함께 민중운동의 하위 범주로 분류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 유신체제기』, 돌베개, pp. 664-683]. 그러나 ‘도시빈민’은 노동자, 농민과 같은 계급적 범주라기보다는 상대적 개념인 ‘빈곤’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계층적 범주이다. 또한 ‘운동 주체’로서 도시빈민은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지만 빈민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주체로서의 태생적 모순을 갖는다.
- 5 용산 참사 희생자 가족과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달동네’로 존재했던 고양시 풍동, 광명시 광명 6동, 서울시 흑석동, 성남시 단대동, 서울시 순화동 등에 거주했던 철거민들의 삶과 증언에 대해서는 조혜원 외(2008), 『여기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들의 삶』, 삶이 보이는 창 참고.
- 6 「한국 얼마나 불평등한가」, 『참여와 혁신』, 2021.10.13; 「1인가구 절반은 ‘가난’… 여성·노인일수록 빈곤율 높아」, 『여성경제신문』, 2023.4.10.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1970~80년대 시흥지역 도시빈민 운동의 역사를 통해 도시빈민이 서울 외곽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의 집단적 주체로 거듭난 특별한 사례를 조명하고자 한다. 시흥지역의 도시빈민 운동은 비공식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었던 대부분의 도시빈민 운동과 달리 종교계와 외원(外援)단체 등의 지원을 받으며 일정하게 공식적 성격을 띠었고, 제정구와 정일우의 주도하에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집단적 정체성이 확장되었던 보기 드문 사례였다. 따라서 이 글은 복음자리 마을에서 시작되어 한독마을, 목화마을로 이어졌던 시흥지역 도시빈민 운동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 특별한 ‘성공 사례’의 역사적,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흥지역 도시빈민 운동에 대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제정구가 1982년 『정경문화』에 제바오르란 이름으로 기고한 ‘집단 이주기’가 있다. 이는 1975년부터 1978년 초까지 복음자리 마을의 정착 과정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자신의 경험과 단상을 정리한 1차 사료에 가깝다. 여기서 그는 “주민들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능력을 펴보일 수 없는 현실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사후에 편찬된 회고록의 해당 부분도 이 집단 이주기의 내용에 기반했다.⁸

본격적 학술 연구로는 김찬호의 연구가 선구적이다. 김찬호는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1986년 9~10월 약 한 달 동안 참여관찰과 면담을 수행했고, ‘철거민 정착공동체’인 복음자리 마을 사례를 “담화구성체를 통한 지역조성운동”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복음자리 마을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한독마을, 목화마을로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과 차이점들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⁹

7 「저출산 부른 ‘고질적 한국병’ 직격탄 OECD… “근본적 개혁 필요”」, 『국민일보』, 2024. 7.11.

8 제 바오르(1982), 「‘복음자리’ 일군 청계천 사람들: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집단 이주기」, 『정경문화』 1982년 4월호;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2000), 『가짐 없는 큰 자유』, 학고재.

시흥지역 도시빈민 운동의 총체적 양상은 2007년에 출간된 『시흥시사 8: 시흥의 도시공간, 도시민의 체험과 기억』에 실린 황병주와 이동헌의 글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황병주와 이동헌의 글도 제정구와 김찬호의 글을 주요 자료로 활용했으나 시흥지역 도시빈민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박재천, 심병현, 최한동 등의 구술을 활용하여 좀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역사상을 그려냈다. 그러나 복음자리 마을과 한독마을·목화마을 사례를 각각의 필자가 나누어 서술하면서 그 종합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다.¹⁰

본고는 이러한 기존 연구 성과에 기반하면서 제정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정일우의 회고록, 『예수회 신부 정일우 이야기』와 미세레올(Misereor) 한국 책임자 슈레틀(Schröttle)의 방한 보고서, 제정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보고서,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1987.1.6.)」 등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¹¹ 이들 자료를 통해 제정구와 정일우가 구상했던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의 이상과 현실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¹²

-
- 9 김찬호(1986), 「철거민 정착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복음자리 마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찬호(2016), 「무허가 정착지의 재개발에서 출발한 주거공동체: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복음자리 마을」, 『도시와 빈곤』 109.
- 10 황병주(2007), 「복음자리 마을의 형성과 삶」,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 『시흥시사 8: 시흥의 도시공간, 도시민의 체험과 기억』,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이동헌(2007), 「새로운 이주민들: 한독주택과 목화연립」,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 『시흥시사 8: 시흥의 도시공간, 도시민의 체험과 기억』, 시흥시사편찬위원회.
- 11 정일우(2009), 『예수회 신부 정일우 이야기』, 제정구기념사업회; 천주교 주교회의의 인성회 전국 사무국, 「독일 가톨릭 해외원조기구 MISEREOR 소개 및 한국책임자 Schröttle 방한 결과 보고, 1978.5.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217713;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198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47158.
- 12 이 글에서는 제정구와 정일우가 주도했던 시흥지역 도시빈민 운동을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정착공동체’라는 개념은 김찬호(1986)의 연구에서 ‘철

2.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의 출발점, 복음자리 마을

1965년 이후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에 의한 ‘한일국교 정상화’와 같은 해 10~11월에 이루어진 베트남전 전투병 과병은 케네디-존슨 행정부 시기 본격화된 저개발국 ‘근대화’(modernization) 전략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¹³ 박정희 정권은 그 성과에 기반해 1967년 5월 재선에 성공했고, 곧바로 3선 개헌에 나서서 이른 시기부터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1964년 2월 보완계획을 통해 수출지향형 공업화로 방향을 전환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1966년 마무리되면서 일정한 성과를 드러냈다.¹⁴ 이로 인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었다. 1966년 인구·주택 국세조사에서 모든 시·읍·면 인구는 유사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고, 1970년 인구 센서스(census)부터 농어촌 읍·면에서 절대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1966년 당시 한국 농어촌은 생산력을 초과하는

거민 정착공동체를 “잠정적 범주”로서 사용하면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엄밀한 사회과학적 개념은 아니다. 당대에는 ‘도시빈민 정착공동체’를 ‘영세민집단촌’, ‘집단지향촌’으로 칭하기도 했지만, 이는 도시빈민의 자활(自活)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반영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철거민이나 영세민보다 더 명확한 개념인 ‘도시빈민’이 주체가 되어 특정 지역의 정착을 목표로 한 공동체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13 케네디-존슨 행정부 시기 본격화된 미국의 근대화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지역사회개발 전략, 대만관전 및 베트남전 전략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마이클 레이섬(2021), 권혁은·김도민·류기현·신재준·정무용·최혜린 역,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 그린비 참고.
- 14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혁명공약’으로 “국가자주경제 재건”을 내세웠던 군사정부의 지향대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그러나 화폐개혁 실패와 식량 위기 이후 미국의 비판을 받아들여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노동집약적 수출지향형 공업화 전략으로 전환했다. 그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기미야 다다시(2008),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후마니타스; 박태균(2007), 『원형과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부 참고.

과잉 인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그 중 상당수가 대도시 진출을 위한 대기 상태에 있었다. 특히 1960년에 244만 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6년 간 5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1966년 379만 명 수준에 도달했다.¹⁵

당시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는 변두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가 도심부에 집중 거주했다. 여기에 급격한 도시 인구 증가는 주택, 교통, 공해 등 이른바 도시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했고, 판자촌, 쪽방촌 등 무허가 빈민촌이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1967년부터 1970년 중반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14만 596동의 판자집이 세워졌고 그 중 8만 9,692동이 철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¹⁶ 박정희 정권은 도시 미관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판자집 철거 및 주민 강제 이주로 도시빈민 문제를 ‘비가시화’하려 했고, 이 같은 서울의 과잉 도시화와 대규모 빈민 주거지 형성은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주민항거’를 초래했다.¹⁷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정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정책 변화를 약속했지만, 과잉 도시화와 대규모 빈민 주거지 형성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비가시화’ 방식의 졸속적 철거민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빈민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다. 판자촌 철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은 당장의 돈과 일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입주권을 투기꾼들에게 팔아넘기고 무허가 정착지의 철거민으로 되돌아갔다. 국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외곽으로 정착지를 이전해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민간에 도시개발을 맡김으로써 토지를 투기 대상화하고 도시빈민의 주거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¹⁸

15 손정목(2002), 「기획연계: 도시 50년사⑦: 1966년과 불도저 시장 김현옥의 등장」, 『도시문제』 37권 406호, pp. 94-95.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 1권』, 동광출판사, pp. 63-64.

17 ‘광주대단지 주민항거’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김동춘(2011), 「1971년 8·10 광주대단지 주민항거의 배경과 성격」,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통권 38호), pp. 9-15 참고.

18 김동춘(2011), pp. 15-20. 당시 도시 하층민에 대한 정권과 관료기구의 지배적 담론에 대

그러나 광주대단지 사건은 도시빈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고,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가 적극적인 빈민 선교에 나서게 되었다. 1971년 9월 1일, 예장, 기감, 기장 등 주요 교단의 성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초교파적 선교기구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¹⁹ 이 글에서 주목한 시흥지역 도시빈민 운동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등장했다. 1976년 8월, 양평동 판자촌에 철거 통지가 이루어지자 판자촌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던 제정구, 정일우가 중심이 되어 주민 집단이주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1977년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 33번지(현 시흥시 신천동)의 복음자리 마을을 시작으로, 1979년 한독마을, 1985년 목화마을에 이르기까지 총 471세대의 도시빈민 정착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²⁰

이 운동을 주도한 제정구(1944~1999)는 1966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했다가 1971년 교련 반대시위로 제적당했고, 1972년부터 청계천 판자촌에서 배달학당의 야학 교사를 하며 빈민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 1973년 복학했으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5년 형을 선고받아 다시 제적되었다. 그는 감옥생활 동안 천주교에 깊이 몰입했고, 1975년 2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이후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왔다.²¹ 1975년 6월 청계천 판자촌이 철거 통지를 받자 54세대와 함께 방이동 집단이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양평동 판자촌으로 들어가 활동했다. 그

해서는 김원(2008),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 『기억과 전망』 18호, pp. 199-203 참고.

19 1968년 9월 신구교 연합으로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 내에 도시선교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는 1971년 9월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 1973년 12월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1976년 5월 한국특수지역선교위원회로 변모하며 도시빈민 문제의 종교계 대응을 주도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1987), pp. 132-146].

20 정일우(2009), 『예수회 신부 정일우 이야기』, 제정구기념사업회, pp. 86-89.

21 「제정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1393> (검색일: 2024.7.7.)

는 양평동 판자촌으로의 귀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판자촌 삶에 중독된 나로서는 또 다른 판자촌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중략)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눈으로 볼 때는 그곳이야말로 삶이 소용돌이치는 곳이요, 희망의 화산이 폭발하는 곳이며, 이 세상을 지탱하는 무한한 힘의 중심이요, 태풍의 눈이다. (중략) 근대화라는 물질만능의 리바이어던이 우리를 쓸어버린 이후 도회지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에서조차도 한국의 정취가 거의 사라져 버린 지금, 판자촌 중독자인 나의 눈에는 판자촌이야말로 한국의 농촌과 도회지가 물과 기름처럼 희한하게 공존하는 곳으로 보였다. 나에게는 어느 의미에서는 판자촌이야말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희망이기도 했다. (중략) 청계천 판자촌에서 모 교회의 위선과 사기성을 본 우리는 판자촌 주민을 위한다는 일체의 자선적 의식은 팽개치고 오직 그들 속에서 우리도 그저 판자촌 주민으로 살기만 하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일을 하기보다 생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배운 것도 이 무렵이다.²²

스스로를 “판자촌 중독자”라 칭한 제정구는 종교적 희망과 함께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한국적 정취, 즉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판자촌에서 찾고자 했다. 또한 자선가나 활동가보다는 판자촌 주민 중 하나로 자신을 규정하고 주거와 생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려 했다. 이는 일반적인 종교인, 지식인 활동가와와는 다른 제정구의 독특한 정체성이었는데, 이때 제정구와 뜻을 같이한 사람이 예수회 신부 정일우였다.

정일우(1935~2014, 미국명 John Vincent Daly)는 1953년 예수회에 입회했고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으며 1966년 사제 서품을 받

22 제 바오르(1982), 「‘복음자리’ 일군 청계천 사람들: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집단 이주기」, 『정경문화』 1982년 4월호, pp. 200~201.

았다. 1961년부터 2년간 철학을 가르쳤던 서강대로 돌아와 1966년부터 예수회 부수련장, 수련장을 맡았고 철학과 신학을 가르쳤다. 그는 연세대 부설 도시문제연구소에서 판자촌 문제를 접하고 1973년 11월 청계촌 판자촌으로 들어가 제정구를 만나고 그와 의기투합하여 판자촌에서 함께 생활했다.²³ 1975년 1월에는 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공개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²⁴ 그는 자신이 판자촌으로 들어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가 가졌던 강한 의심과 뭔가 부족한 것의 핵심은 ‘복음을 입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그때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무나 인간다운 면이 있었다. 이 점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 판자촌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이 되고 싶었다. 참사람이 되고 싶었다. (중략) 청계천 주민들이 인간답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공동체 분위기’ 때문이다. 가난하지만 굉장한 공동체였다. 또 가난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중략) 다 내 자식이고 내가 키우는 사람이고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라는 공동체 분위기였다. 나는 이것이 진짜 사람이 되는 방향이라고 확신했다.²⁵

정일우는 판자촌 사람들의 가난한 삶에서 서로 돌보며 사는 공동체성을 보았고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을 찾고자 했다. 판자촌 주민들도 미국인 신부 정일우를 ‘한번 살아봐라’는 식으로 받아주었다. 정일우는 1974년 4월 제정구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될 때까지 청계천에서 살았고, 1975년 10월 제정구가 양평동 판자촌에 들어가고 나서 그도 한 달

23 정일우(2009), pp. 36-50.

24 「외국인선교사 60명, 대통령에 탄원서, 공개재판 요구, 인혁당 관련 피고」, 『동아일보』, 1975.1.6.

25 정일우(2009), pp. 49-54.

뒤 다시 양평동 판자촌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복음자리’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공동 공간으로 얻은 5평짜리 판잣집에 김수환 추기경을 초청해 축성 미사를 드리고 ‘예수회 복음자리’라는 간판을 달았다. 그곳은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동네 사랑방이고 노인정이며 동시에 예배당이기도 했다. 정일우는 이 공간을 통해 “양평동 공동체”가 생겨났다고 회고했다. 이런 삶을 통해 제정구와 정일우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네 주민이 되었다.²⁶

그러나 1976년 8월 양평동 판자촌에도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 서슬 퍼런 유신 시대, 긴급조치 9호 이후 반유신운동도 움추러든 엄혹한 시절이었다. 이들은 철거에 맞서 싸우기보다 “같이 가서 살고 싶어” 집단 이주를 모색했다. 그러나 1년 전 방이동 땅을 살 때보다 땅값이 크게 올랐고, 세대당 100~200원씩 염출해서는 50여 세대가 필요로 하는 서울 변두리 땅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때 김수환 추기경이 서독 천주교 지원단체 미제레올(Misereor)의 지원을 받도록 주선했고, 5만 달러를 융자받아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 33번지(현재 시흥시 신천동 33번지) 땅 3,600평을 평당 6천 원에 매입할 수 있었다.²⁷

미제레올은 서독 가톨릭교회 주교회의 산하 해외개발원조기구로,

26 정일우(2009), pp. 51-61; 제 바오르(1982), p. 202.

27 김찬호(1986), 「철거민 정착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복음자리 마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p. 26; 정일우(2009), pp. 64-67; 제 바오르(1982), pp. 201-202; 「내가 만난 김수환 추기경,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신명자 이사장」, 『가톨릭신문』, 2009.11.24. 미제레올 융자 금액과 매입한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제정구는 “몇천 평”을 “평당 6천 원에 구입”했다고 회고했고, 정일우는 토지 면적을 “오천여 평”이라고 회고했지만 융자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김찬호의 연구와 이에 기반한 『시흥시사 8: 시흥의 도시공간, 도시민의 체험과 기억』에서는 “5만 달러” 융자와 “3만 2,000평”이라 서술했다. 그러나 제정구의 아내인 신명자는 “10만 달러”를 들여야 “3,600평”의 부지를 마련했다고 회고했다. 이 글에서는 1977년 당시 평균 원달러 환율인 484원과 평당 매입가 6천 원을 고려하여 “5만 달러” 융자로 “3,600평”을 매입했다고 추정했다.

1958년 쾰른(Köln) 대주교 프링스(Joseph Frings) 추기경의 제안으로 “전 세계의 기아와 나병에 맞서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들은 자조와 자립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협동사업, 직업 및 기술훈련, 도시 빈민지역 자조사업, 농촌의 주민 공동체 조직 및 개발사업, 청소년 활동 사업 등을 지원했다. 한국에서는 1959년부터 1976년까지 4,900만 마르크(한화 약 1,130억) 규모의 각종 사업을 지원했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은 의료사업(사업 수 63개, 1,432만 마르크)과 교육사업(사업 수 42개, 994만 마르크)이었고 농업분야(사업 수 35개, 687만 마르크)와 소규모 가내수공업(사업 수 28개, 503만 마르크) 지원이 뒤를 이었다. 미제레울의 한국, 대만 담당자 슈레틀(Schröttle)은 1978년 4월 방한 당시 시흥 복음자리 마을을 방문해 정일우 등을 만나기도 했다.²⁸

양평동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흥군으로의 집단 이주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제정구는 “장소는 당초 우리가 기를 쓰고 매입하려던 곳과는 달리 시흥군 소재면 신천리라는 곳으로 정해졌다”, “내가 판자촌에 중독된 것처럼 그들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중독되어 서울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다”고 회고했는데,²⁹ 사실 서울의 일자리를 위해 판자촌을 전전하던 이들이 서울 외곽의 과수원 자리로 집단 이주를 결정하는 것은 두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1977년 3월 31일 토지 등기를 마쳤고, 4월 9일, 170세대의 이주 세대수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매일 2~3세대씩 이사를 해서 6월 말까지 140여 세대가 이사했지만 이들은 서울시에서 비상천막 75개를 빌려 임시 주거를 마련한 뒤 대지 조성, 기초 터 파기, 벽돌 나르기까지 직접 공사에 나서야 했다. 건축비를 평당 5만 원으로 설정하고 집의 위치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각자 역할을 나누어 건축비에서 월급을

28 천주교 주교회의 인성회 전국 사무국, 「독일 가톨릭 해외원조기구 MISEREOR 소개 및 한국책임자 Schröttle 방한 결과 보고, 1978.5.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217713.

29 제 바오르(1982), pp. 202-203.

주기로 하는 등 체계를 잡았지만 계약과 해약이 되풀이됐고, 제정구와 그의 동생 제정원, 정일우 등 주도층에 대한 불신과 몰이해도 지속되었다. 양평 1, 2동과 문래동 등 출신 동네를 따라 파가 나뉘어 다툼도 치열했다. 그럼에도 4월 19일 전기를 들이고, 우물 공사로 식수를 해결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5월 14일부터 과수원의 흙을 파서 논을 메웠고, 6월 14일 건축 기공식을 했으며 7월 28일 상량식을 갖고 9월 24일 입주식을 가졌다.³⁰

공동 노동과 때마다 벌어지는 마을 잔치를 통해 함께 일하고 싸우고 이해하며 복음자리 공동체는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정일우는 “매일같이 벌어진 주민들 서로간의 싸움과 나와 정구를 상대로 벌인 싸움을 통해서 공동체가 튼튼해졌다”고 회고했다. “찐한 비빔밥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다.³¹ 미제레올과 김수환 추기경으로 대표되는 가톨릭교회의 지원, 제정구와 정일우 등 주도층의 출선수범도 중요했지만 이와 같은 공동체 주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도시빈민 정착공동체로서 복음자리 마을이 성립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제정구도 “복음자리 집단이주 정착사업은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의 병든 인간성의 회복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즉 “단순히 가난한 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 사업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파괴된, 그러면서 덜 익은 인간성 자체를 함께 치유하고 성숙시키는 삶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삶을 소모시켜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또한 정일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정신과 의식의 변화”를 얻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주택의 의미도 변화했다. “집이란 상품이 아니라 우리들이 공동으로 함께 살 터요 자리”가 되었고 “개개의 소유물로서의 누구의 집이라는 개인 단위가 강조되기보다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 강조되었으며, 그것은 그 후 신협과 마을 장학회 등이 싹트고 자랄 수 있는

30 제 바오르(1982), pp. 205-215.

31 정일우(2009), pp. 72-74.

정신적 터전”이 되었다.³²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간접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제정구의 회고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정부 고위층”은 중앙정보부 소속 고위 관료였다고 한다.³³ 그 고위 관료는 자신의 보좌관을 ‘복음자리’ 마을 일에 전담시켰고, 제정구는 “그분의 적극적인 도움 속에서”, “그분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땅을 매입”했다고 회고했다. 보좌관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비상천막을 빌리고, 건축 허가도 나기 전에 임시 전기 가설을 하도록 도왔다. 대지 조성 작업 때는 군부대 불도저를 4일간 지원받도록 했고, 건축허가 신청 상태에서 시멘트 7천 포대를 주문하도록 주선하는 등 고비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다. 이러한 지원은 비공식적이었지만 입주식 때 김수환 추기경이 중정 고위 관료와 보좌관에게 감사패를 줄 정도로 공공연한 것이었다.³⁴

제정구, 정일우와 함께 도시빈민 운동에 투신했던 박재천의 회고에 의하면 청계천에서 방이동으로 집단이주를 시도했을 때는 “중앙정보부의 집요한 방해공작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았었다고 한다.³⁵ 그렇다면 2년 만에 무엇이 달라졌던 것일까? 서울의 방이동과 시흥군 소래면 신천

32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198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47158.

33 황병주(2007), 「복음자리 마을의 형성과 삶」,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 『시흥시사 8: 시흥의 도시공간, 도시민의 체험과 기억』, 시흥시사편찬위원회, p. 351. 황병주의 글에서 정부 고위층이 중앙정보부 소속이라는 설명은 제정구, 정일우와 함께 도시빈민운동에 투신했던 박재천의 구술을 근거로 했다. 그런데 이 중앙정보부 소속 고위 관료가 당시 중정 2차장이었던 전재덕이라는 설이 있다. 전재덕은 육사 8기생으로 5·16군사정변에 가담하여 서울시부시장, 일본 공사, 중앙정보부 감찰부장, 제2차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 아키타현 일만(日滿)공업학교 출신으로 일본 육군 보병에 징집되었으나, 중국 국민혁명군을 거쳐 광복군에 투신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기도 했다. 제정구도 입주식 때 “주민들은 추기경님께 감사패를 드렸고, 추기경님은 보좌관과 차장님께 감사패를 드렸다.”고 회고한 것으로 보아 중정 고위 관료가 전재덕 제2차장일 가능성이 있다[제 바오르(1982), p. 214].

34 제 바오르(1982), pp. 202-214.

35 「가짐 없는 큰 자유 제정구 1(하)」, 『한겨레』, 2005.8.24.

리의 차이, 김수환 추기경의 역할 등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집단이주 사업을 주도할 수는 없더라도 철거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도록 제정구, 정일우 등의 이주사업을 암묵적으로 지원했을 것이라는 황병주의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복음자리 마을은 정부 재정을 쓰지 않고도 철거민의 ‘자발적’ 집단 이주로 도시빈민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조적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비공식적 지원을 할 만한 기책이었던 것이다. 박재천은 이를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 기여를 한 것이고 주민 차원에서는 빈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³⁶

그러나 복음자리 마을로 이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무질서와 혼란은 계속되었다. 건축 경비 문제, 주택 위치 배정을 둘러싼 분쟁, 기존 원주민과의 마찰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철거가 단순히 거주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판자촌 시절 동네에서 비공식적으로 맺어진 이웃, 단골, 동료와의 사회적 관계는 생계 기회 분배의 근원이자 경제적 불안정성과 현금 결핍을 극복하는 자조 체계로 존재했다. 철거는 자조 체계의 해체를 의미했고, 집단 이주로 그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낯선 환경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질서와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었다.³⁷

이런 상황에서 1978년 복음 신용협동조합이 창설되면서 마을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본래 미제레올의 융자금으로 마을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 채무를 청산하자는 취지에서 신용협동조합을 창설했다. 대부분 비공식 부분에 종사했던 주민들은 사채를 쓰는 대신 신탁을 이용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했다.³⁸ 정일우도 이를 “경제적으로

36 황병주(2007), pp. 442-443; 김수현(1999), p. 218.

37 김찬호(1986), p. 31.

38 김찬호(1986), pp. 27-34. 김찬호에 따르면 복음자리 주민들은 대부분 막노동, 공장직공,

스스로 돕고 살 수 있는 협동운동”이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집을 다 짓고 난 다음 주민들의 생활고와 경제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인 이곳에 집만 있고 일거리가 없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기는 해도 먹고 사는 연결망이 서울에서 시골로 옮겨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다. 정구도 스스로 서울 서교동에 있는 협동교육연구원에서 신용협동조합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출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스스로 돕고 살 수 있는 협동운동을 전개한 것이다.³⁹

복음신협은 1978년 5월 7일 창립총회를 갖고 회원 54명으로 출발했다. 제정구가 초대 이사를 맡았지만 2년 만에 내놓았고 이후 모든 운영은 주민들이 맡았다. 철거민들이 복음자리 마을에 정착하며 신협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실감한 것은 실로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출자액의 10배 한도로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도 사체를 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신협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저축과 공동사업은 거의 모든 주민을 회원으로 만들었고, 1987년경에는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면서 오히려 인근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⁴⁰

복음신협은 서민저축기관으로서 은행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유대 못지 않게 사회적 유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 회원들은 신협을 “출자금을 바탕으로 개인들을 스스로 활동케 하는 협동조직”으로 규정했다. 회원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교양, 건강 강좌를 개설했고,

잡상인 등 비공식 부문에 종사했다. 1985년 3월 현재 마을 세대주의 직업 분포는 무직 33%, 막노동 22%, 사무직 10%, 판매직 9%, 농업 2%, 생산직 16%, 기타 8%로 나타났다.

39 정일우(2009), p. 77.

40 김찬호(1986), 28-34.

월례회, 총회, 조합원 간담회 등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생일 축하 모임, 경로잔치, 야유회 등을 통해 친목을 다졌고, 81년부터는 마을 소식지 역할을 하는 '복음신협'지를 1년에 두 차례 발행했다. 매년 단오제는 신협 창립 기념행사로 치러졌는데, 마을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도 초대되어 함께 어울리는 잔치가 되었다.⁴¹

마을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며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복음신협을 통해 경제적 유대를 회복하면서 주민들은 복음자리 마을로 이전하기 위해 미제레올로부터 융자받은 융자금을 100% 상환했다. 빈민 대상 융자에서 이런 결과는 이례적인 일이었고 미제레올은 이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미제레올의 슈레틀(Schrötle)이 1978년 5월 방한 보고서에서 “진정한 인간 발전과 인간 개발은 주민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파생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에 부합하는 결과였다.⁴²

41 김찬호(1986), pp. 35-41.

42 정일우(2009), p. 76. 슈레틀의 방한 보고서는 시흥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의 대목은 복음자리 마을을 방문한 인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방문한 여러 곳에서 교회가, 심지어는 교회의 냄새를 피우지 않고도, 구체적으로 주민 공동체와 함께 일하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이다. 도시 변두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여건하에서 이들과 같이 생활하며 헌신하는 성직자, 수도자, 심지어는 평신자들을 만나 본 것은 대단히 감격적인 일이었으며 농촌 벽지 구역에서 이들과 생활을 나누고 살고 있는 이들을 만나본 것은 새로운 경험으로 오래 간직할 것이다. 진정한 인간 발전과 인간 개발은 주민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파생되는 것이어야 하며 교회의 역할은 말씀 그대로 누룩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중략) 이들은 오히려 외부의 지원이나 원조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과 자조의 정신을 헤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 것은 특히 인상 깊은 일이었다.” 천주교 주교회의의 인성회 전국 사무국, 「독일 가톨릭 해외원조기구 MISEREOR 소개 및 한국책임자 Schrötle 방한 결과 보고, 1978.5.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217713.

3. 한독마을, 목화마을의 탄생과 공동체 성격의 변화

복음자리 마을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서 두 번째 도시빈민 정착공동체가 모색되었다. 정일우는 복음자리 마을 집단 이주가 끝난 후 “지옥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서울 변두리에는 철거 지역이 많았고 “1979년 두 번째 집단이주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회고했다. 제정구와 정일우 등 복음자리 공동체 사람들은 당산동, 신림동, 시흥동, 봉천동 등의 철거지역 주민들 약 600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식구가 많거나 형편이 나쁜 철거주민을 우선 선정해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164세대가 선정되었고, 매주 1회씩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제정구, 정일우 등이 건축업자가 아니며,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한다는 것, 직접 공사에 참여해서 내 집을 스스로 짓는다는 것 등이었다. 이처럼 두 번째 마을도 복음자리 마을과 같은 공동체 형성을 지향했다.⁴³

그러나 1979년에는 외적인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첫째는 건축법의 변화였다. 건축 자재 규제로 이전과 달리 주민들이 벽돌, 블록을 찍어 쓸 수 없게 되었고, 설계는 설계회사가, 건축은 건설회사가 해야 허가가 나게 되었다.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둘째는 땅값의 폭발적 상승이었다. 미제레올 지원금과 복음자리 마을 용자 회수금으로 신천리 근처인 은행리에 2,000여 평의 토지를 구매했지만, 1977년에 3,000원 정도 하던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해 3만 1,000원이 되었다. 이 때문에 세대별 땅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층집 대신 2층집을 지어야 했고, 건축법 규제와 자재 사용 면에서 많은 제약이 생겼다.

상황 변화로 주민들의 공동 작업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복음자리 마을 처럼 철거 후 건축 현장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철거

43 정일우(2009), pp. 76-78.

전에 집을 짓고 이사를 했다. 천막 생활과 공동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정착공동체 주도층과 어울려 살 기회가 없었다. 정일우는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복음자리 마을처럼 편하게 뭔가 돌아가는 것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공간 구성의 문제도 있었다. “그냥 일자로 2층 연립 여섯 동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일우는 이를 “철학이 없는 건축설계”라고 평했다. 복음자리는 1층 연립에 마을 중간쯤 공터가 있어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2층 연립에 마을의 중심이 될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여지책으로 마을회관을 짓기로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들을 공사 현장에 오도록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⁴⁴

주민들은 입주를 앞두고 전체 총회를 해서 주택명을 ‘한독주택’이라고 지었다. 한국과 독일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독일 미체레울의 주택건설비용자를 기리는 의미였다. 한독마을 이주민은 164세대로 주로 시흥동, 사당동, 양평동, 양남동 등 서울 지역과 경기도 안양 일대의 철거민들로 출신 지역이 다양했다. 그 중 양평동, 양남동 출신들이 가장 많았는데 복음자리 건설 당시 이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추가 이주한 것이었다. 한독주택은 ‘가동’부터 ‘바동’까지 총 6개 동으로 구성되었고 8평형과 9평형 두 종류에 내부는 방 2개에 부엌 하나가 딸린 구조였다. 분양 가격은 평당 30만 원으로 8평형은 240만 원, 9평형은 270만 원에 분양되었다.⁴⁵

복음자리 마을과 한독마을은 도시빈민 정착공동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성격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복음자리는 양평동 철거촌에서 함께 이주했고 천막생활과 공동노동을 통해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복음신협과 마을 장학회, 단오제 등을 통해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다.

44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198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47158; 정일우(2009), p. 78.

45 이동현(2007), 「새로운 이주민들: 한독주택과 목화연립」,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 『시흥시사 8: 시흥의 도시공간, 도시민의 체험과 기억』, 시흥시사편찬위원회, pp. 390-391.

그러나 한독마을 주민들은 출신 지역이 다양했고 공동노동의 기회도 없었다. 이 때문에 제정구는 한독마을에서는 “집을 짓는 과정이 인간을 치유하고 형성하는 과정이 되고 삶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집을 자신과 가정의 터전으로 보기보다는 재산 내지는 물질적 차원으로” 봤다는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의식 역시 인간 성숙이나 인간 발전을 지향”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이해를 향한 공동체”라고 평가했다.⁴⁶

복음자리 마을에서 주민들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경험했던 정일우와 제정구의 시선에서 한독마을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독주택에 정착한 철거민들은 복음자리 주민들이 그랬듯이 집단 이주촌 건설을 통해 비로소 무허택 철거민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게다가 철거민과 무허가주택 거주자 및 영세 세입자의 지위를 반복했던 도시빈민들이 경제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공간 구성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가 존재했다. 한독마을 첫 자치운영회장을 지낸 심병현은 나지막한 언덕에 2층으로 지어진 한독주택이 ‘문화주택’으로 불리며 지역 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한독마을 주민들은 주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독주택자치운영회’를 조직했고 갈등을 해소해 나갔다. 출신 지역은 달랐지만 모두 철거민, 이주민이라는 정서적 공감대도 있었다. 특히 복음신협이 설립된 이후 단오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이주민들과의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고취해 나갔다.

천주교도 주민들을 묶어주는 요소였다. 한독주택에는 정일우 신부와 수녀 두 분이 생활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영향력은 신앙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특히 정일우는 주민은 물론 천주교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

46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198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47158.

기 때문에 천주교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심병현의 회고에 의하면 초기에 한독마을 주민의 약 10%에 불과하던 천주교 교인 수는 이후 50~60%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주민들은 한독주택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했고, 그것을 주변 지역과 다른 독특한 장점으로 자부했다. 다음은 심병현의 구술이다.⁴⁷

우리 한독에 초상이 낮잖아 그러면 동네 사람 하나도 안 자, 회관에 다 모여. 다 도와주는 거여. 그것이 참 공동체라여 참. 그러니까 여 사람들이 지금도 말이지 한독이 녹원아파트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부러워해요. 누구 하나 죽었다 하면 전부 다 가서 밤새여, 안 자여. 그런데 그런 거지 뭐. 자치적으로 인제 동네 한 공동체.⁴⁸

이렇게 한독마을이 ‘참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고 있을 무렵 세 번째 도시빈민 정착공동체가 모색되었다. 정일우는 이를 “강서구 목동 철거민들의 피나는 투쟁을 지켜보고 함께 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회고했다. 목동은 원래 서울시가 1960년대 말 후암동 등의 철거민들의 이주 대책으로 대토(代土)를 주어 정착시킨 지역이었다.⁴⁹ 1970년대까지 정부의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현지 개량이나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주조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들어 ‘합동재개발 사업’으로 급선회했다. 1983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상업적 재개발사업을 통해 무허가 정착지를 기존 주택시장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주택 및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을 결성하고 민간 건설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해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주택 건설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주거 문제의 핵심 주체인 정부 대신 재개발조합과 건설사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은

47 이동현(2007), pp. 390-397.

48 이동현(2007), p. 398.

49 정일우(2009), p. 79.

이러한 ‘합동재개발 사업’의 신호탄이었다.⁵⁰

‘합동재개발 사업’에서는 세입자 대책이 쟁점으로 등장했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만 재개발조합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보상이나 대책을 요구할 수 없었고 말 그대로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다. 당시 철거대상 중 세입자 가구수는 2,588가구에 이르렀다.⁵¹ 1983년 목동지구 택지개발이 확정되고 1984년부터 철거가 시작되자 8월부터 철거 반대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제정구와 정일우 등은 거의 매일 목동 철거민들의 투쟁 현장에 가서 이들과 함께했고, 복음자리와 한독 마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 이주를 준비했다.⁵²

목동지역 철거민들도 한독마을 사람들처럼 도시빈민 집단거주지를 중심으로 철거와 이주를 반복했던 이들이었다. 이주민 최한동의 구술에 따르면, 목동 철거민들은 1970년대 중반 서울의 종로, 을지로, 서빙고 등 도시빈민 집단거주지에서 강제로 이주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서로 정이 들어버린 동네가” 될 무렵 목동은 철거 예정지가 되었고,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철거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세입자 철거 보상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입주를 장려했는데, 가수용 시설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완공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입주

50 김수현(1999), pp. 218-219; 「도시 개발과 빈곤의 연대기」, 『레디앙』, 2018.1.18. 1983년 시작된 목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역별로 이합집산을 거듭한 철거투쟁이 조직적으로 발전한 계기이기도 했다. 1984년부터 철거민 투쟁이 본격화되자 제정구, 정일우 신부 등의 주도로 1985년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이후 천주교도시빈민회, 약칭 천도빈)와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가 탄생했고, 뒤이어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약칭 기도빈) 등이 생겨났다. ‘주거권’, ‘도시빈민운동’이라는 용어도 이때를 계기로 대중화되었고, 학생운동세력이 철거투쟁에 결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두 개의 길, 전철협과 전철연」, 『한겨레 21』 558호, 2005.5.).

51 정일우(2009), p. 79; 이동현(2007), p. 401.

52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198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47158; 김수현(1999), pp. 218-219; 이동현(2007), pp. 399-400; 정일우(2009), pp. 79-80.

권을 받은 철거민 대부분은 전문 부동산업자에게 100만~300만 원을 받고 입주권을 팔아 당장 살 곳을 마련해야 했다. 입주권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집단이주를 요구한 주민들은 최한동을 비롯한 36세대였는데, 이들은 투쟁 과정에서 제정구, 정일우 신부와 연결되었고 복음자리, 한독마을과 같은 집단이주를 제안받았다.⁵³

제정구와 정일우 등 복음자리 공동체 식구들은 한독마을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집단이주에 필요한 토지를 구매했다. 그 사이 땅값이 또 몇 배나 올랐지만 복음자리와 한독마을 용자 상환금에 미제레올의 지원금 3억 원을 합쳐 한독마을 근처의 은행동 지역에 2,000여 평을 매입했다. 주민 교육뿐만 아니라 한독마을을 만들 때 아쉬웠던 설계와 건축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처음 이주한 36세대는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한독주택 근처 공터에서 1년 이상 천막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는 주택 완공 이후 이주했던 한독마을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또한 이들은 목동에서 철거반대투쟁을 함께 했던 철거민을 대상으로 추가 이주자를 모집했다. 69세대가 추가 이주를 결정했고 총 105세대가 새로운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목화마을’을 건설했다.⁵⁴

목화마을이란 명칭은 목동에서 철거된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어 산다는 뜻으로 주민들이 지었다.⁵⁵ 목화마을은 건설 재원 마련 방식에서 복음자리, 한독마을과는 차이가 있었다. 미제레올의 지원금도 있었지만 정부로부터 용자를 받은 것이다. 정부에서 집단이주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부에 저리 용자를 요구했고, 서민 주택자금 대출이율 6.5%보다 낮은 3%의 이자율에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⁵⁶ 그러나 무엇보다

53 이동현(2007), pp. 401-403.

54 정일우(2009), pp. 79-80; 이동현(2007), pp. 402-403;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198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47158.

55 정일우(2009), pp. 80-81.

56 이동현(2007), p. 403.

다도 장기간의 철거반대투쟁 끝에 도시빈민 정착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목화마을은 복음자리, 한독마을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

복음자리, 한독주택이 정부의 철거정책에 대하여는 전혀 항거해 보지 못한 것에 비해 목화마을은 철거반대투쟁을 피나게 전개했던 주역들의 대부분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다. 건축법이나 땅값 및 건축 자재값의 상승 요인은 79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지만 목화마을은 빈민운동의 결과 및 과정으로서 형성된 마을이라는 특성과 아직 입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하기 힘들다.⁵⁷

입주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유보하고 있지만 “빈민운동의 결과 및 과정으로서 형성된 마을”이라는 제정구의 지적은 목화마을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었다. 제정구, 정일우와 마을 주민들은 목화마을이 “주민 자신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05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매주 1회 토요일이면 지역 주민센터 격인 ‘작은자리 회관’에 모였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집단이주 사업 경과를 듣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모임은 제정구가 주도했는데 특히 건축설계에 관해 많은 의견과 토론을 주문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했다. 정일우는 이를 “철학이 있는 건축설계”라고 평가했는데, “주민들이 서로서로 통하는 건축설계”로 “서로서로 통해야 주민들의 공동체가 생긴다”는 철학을 반영한 것이었다.⁵⁸

57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198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47158. 이 자료에서 제정구는 목화마을 주민들이 “84년 9월부터 85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대정부 철거반대 투쟁을 통하여 100회 이상의 데모와 시위를 했고, “1년 이상(85년 5월부터 86년 6월까지)을 천막 속에서 같이 살았”다고 묘사했다.

58 정일우(2009), pp. 80-81. ‘작은자리 회관’은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 주도로 미체레올의 지원을 받아 복음자리마을과 한독마을 사이에 3층 건물을 짓고 1985년 2월 개관했다. 개관 이후 1986년까지 제정구 가족 등과 복음자리 마을로 들어온 샬트르 성마오로회 소속 수녀들이 공동으로 운영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였고, 재

이에 대한 제정구의 평가도 유사했다.

진물의 구조는 3개 동, 3층 연립이다. 그리고 보다 공동체적인 마을 분위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한독주택의 구조를 보완하여 동별로 공동의 공터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전체의 구조를 ‘ㄷ’형이나 ‘L’형으로 하여 마을의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살렸다.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 초기에는 “단결과 협조 및 협동이 잘 안되고 상호불신 또한 심한 편”이었다. 제정구는 “가난으로 인해 받은 인격적인 상처들이 (중략) 집을 짓는 과정에서 공동 작업이나 공동 노동을 전연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중략) 내면적으로 승화되거나 치유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동안(77년부터 86년까지)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이요 비인간적 반인간적인 개발정책 및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한국의 사회적인 풍토 자체가 비인간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향 또한 큰 것 같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복음자리, 한독주택이라는 두 마을이 어떤 정신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그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중략)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소되고 승화되어 정리 정돈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희망을 갖기도 했다.⁶⁰

실제로 목화마을 이주민들은 입주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시흥 지역에 뿌리 내렸다. 한독마을이 그랬듯이 목화마을 주민들은 복음자리, 한독마을 주민들과의 연대, 복음신협외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1985년 탄생한 작은자리 회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마을 잔치를 통해

야 민주 단체의 회합, 노조 준비 모임 장소의 역할도 했다(「작은자리」, 『디지털시흥문화대전』).

59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198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47158.

60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198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47158.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었다.⁶¹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 마을 사이에는 도시빈민 정착공동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공동노동의 경험, 이주 시점, 출신 지역, 건축법 개정에 따른 공간 구성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1977년부터 1986년까지 10년에 걸쳐 자리 잡은 세 마을 사람들은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와 복음신협, 작은자리 회관을 중심점으로 점차 ‘하나의 지역 공동체’이자 도시빈민 운동, 시민운동의 ‘주체’로 변모해 갔다.

이러한 변화는 1986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⁶² 복음자리 마을 이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옆에 산업도로가 생겼지만 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가 잦았다. 주민들의 요청에도 신호등 설치에 계속 미뤄졌고 1986년 봄 한 어린이가 큰 사고를 당했다. 그러자 마을 주민 300명은 3월 10일 오전 8시를 기해 일제히 산업도로 한복판에 앉아 도로를 점거했다. “살인도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신호등을 세워달라” 등의 피켓을 들고 안양과 인천을 잇는 도로를 2시간가량 봉쇄하자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고 광명경찰서장, 시흥군수가 나와 타협을 시도했다. 그러나 주민 중에는 목동에서 철거반대 투쟁을 치렀던 목화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수와 경찰서장으로부터 각서 형식의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고서야 농성을 풀었다.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가 한바탕 잔치를 벌였고, 몇 년을 끌던 신호등은 그날 밤 세워졌다.

1986년 8월에는 제정구가 하왕십리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8월 15일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정일우 신부와 함께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지 6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제정구는 8월 19일, 유언비어 유포, 불안감 조성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5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⁶³ 이에 복음자리, 한

61 이동원(2007), pp. 405-408; 「작은자리」, 『디지털시흥문화대전』.

62 이하는 김찬호(1986), pp. 36-38의 사례를 요약 정리한 것임.

63 「막사이사이상 받는 제정구씨 “불우이웃 위해 할 일 했을뿐”」, 『동아일보』 1986.8.9.; 「막

독마을, 목화마을 주민 150명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산업도로를 거쳐 신천리 시장까지 진출해 파출소, 읍사무소 등지를 돌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합부로 저지하지 못했고 주동자 중 누구도 적발되지 않았다. 1986년 9월 20일에 개막한 아시안게임 성화 봉송 때도 읍사무소에서 풍물 응원 등을 위해 복음자리 마을 청년회를 동원하고자 했으나 청년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

시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적 지지를 드러내며 관의 동원에 불응하는 행위는 매우 작은 실천이었지만, 철거촌을 전전하며 권력과 금력에 패배하는 데 익숙했던 도시빈민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승리의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세 마을 사람들은 ‘하나의 지역 공동체’이자 도시빈민 운동, 시민운동의 ‘주체’로 진화해 나간 셈이다.

4. 맺음말

1977년 복음자리 마을, 1979년 한독마을, 1986년 목화마을로 이어진 시흥지역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은 서울의 과잉 도시화와 대규모 빈민 주거지 형성, ‘비가시화’ 방식의 졸속적 철거민 정책이 만들어낸 빈곤의 악순환에 대한 대안적 주거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주도했던 것은 “판자촌 중독자” 제정구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인간이 되고 싶었”던 정일우 신부였다. 이들은 청계천과 양평동 판자촌에서 가난한 이들이 서로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이자 인간성의 본질이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그러한 공동체와 인간성의 본질을 지키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철거민 집단이주와 정착지 형성에 투신했던 것이다.

사이사이상 수상자 제정구씨 경찰서 연행, 『동아일보』, 1986.8.16.; 「제정구씨 구류 5일」, 『조선일보』, 1986.8.19.

이들이 양평동 철거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복음자리 마을은 미제레울의 용자금과 정부의 ‘간접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비공식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었던 대부분의 도시빈민 운동과 달리 일정하게 공식적 성격을 띠었지만, 제정구와 정일우의 관점에서 이는 주민들이 공동 노동을 통해 인간성을 치유하고 성숙해 가는 “가장 이상적이고 성공적이었던” 공동체였다.⁶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신협이 경제적,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고, 이는 한독마을과 목화마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건축법 개정으로 주민 스스로 설계와 건축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한독마을과 목화마을에서는 복음자리 마을처럼 공동 노동을 통한 치유와 성숙을 경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정구와 정일우의 시선에서 이들 두 마을은 인간성을 치유하고 형성하는 과정이 없는, “경제적인 이해를 향한 공동체”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들 세 마을 사이에는 철거민, 이주민이라는 정서적 공감대와 유대감이 존재했고, 주민들은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자리 공동체와 복음신협, 작은자리 회관을 구심점으로 점차 ‘하나의 지역 공동체’이자 도시빈민 운동, 시민운동의 ‘주체’로 진화해 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흥지역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의 성장과 진화 과정은 압축적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한국의 개발·발전 과정에서 대안적 주거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역사적 맥락과 현재적 의의를 보여준다. 이 운동은 정부 재정을 쓰지 않고 도시빈민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조적 사업”의 모범 사례로서 정부의 간접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집은 상품이 아니다”, “집을 짓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짓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어도 한국의 사회정의이다.”라는 제정구의 신념과 이에 기반한

64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198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47158.

운동은, 빈곤의 악순환 문제가 개인의 주거와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변화한 인간성과 공동체의 문제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따라서 시흥지역의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이 대안적 주거 운동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운동이 도시화, 근대화 과정에서 해체되어 가던 한국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성을 도시와 농촌의 성격이 교차하는 시흥지역에서 정착공동체 형성을 계기로 재구조화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물론 제정구와 정일우가 추구했던 공동체성은 전통적인 농촌공동체로의 회귀적 성격을 갖고 있었고 주거환경 형성과 인간성의 회복 문제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1970~80년대 한국의 도시화 조건에서는 구현되기 힘든 이상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가치지향적 헌신과 복음신협 운동으로 대표되는 현실적, 경제적 노력은 시흥지역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의 성장과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제정구 등 복음자리 공동체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1991년 2월 11일, 한국화학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한반위)를 발족하여, 한화가 법률 개정 하루 전날 매립 허가를 받아 독점하고자 했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시민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시민사회와 재벌기업의 지난한 싸움은 1998년 한반위가 개발이익 중 일부를 시흥시에 토지로 기부채납한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2002년 시흥시와 한화가 최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⁶⁵ 이러한 성취는 도시빈민 운동을 통해 시민운동의 '주체'로 진화한 시흥지역 도시빈민 정착공동체 운동의 역사적 유산이자, 1989년 시로 승격된 이후 2022년 '대도시' 지위를 획득한 시흥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기존 연구 성과들에 기반하되 기존 연구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활용하여 복음자리 마을, 한독마을, 목화마을로 이어진 시흥지역 도시빈민 정착공동체운동의 성장과 진화 과정 및 성격 변화를 종합, 정리했

65 「위대한 시흥 시민운동 '한반위'를 기억하다」, 『경인일보』, 2020.10.12.

다는 연구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제정구와 정일우 등 운동 주도층이 남긴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면서 471세대에 달했던 마을 주민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사 연구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추후 연구를 통해 극복을 모색하고자 한다.⁶⁶

참고문헌

자료

- 『가톨릭신문』, 『경인일보』, 『동아일보』, 『이대학보』, 『조선일보』, 『한겨레』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레디앙』, 『한겨레 21』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빈민 주거 건설의 문제점과 전망: 복음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198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47158.
 천주교 주교회의 인성회 전국 사무국, 「독일 가톨릭 해외원조기구 MISEREOR 소개 및 한국책임자 Schröttle 방한 결과 보고, 1978.5.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217713.

논저

- 김동춘(2011), 「1971년 8·10 광주대단지 주민항거의 배경과 성격」, 『공간과 사회』 제 21권 4호(통권 38호).
 김수현(1999), 「서울시 철거민운동사 연구: 철거민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3.
 김영석(1989), 『한국사회 성격과 도시빈민운동』, 아침.
 김찬호(1986), 「철거민 정착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찬호(2016), 「무허가 정착지의 재개발에서 출발한 주거공동체: 경기도 시흥군 소재읍 복음자리 마을」, 『도시와 빈곤』 109.
 도시빈민연구소 편(1991), 『굴레를 깨고 일어서는 사람들: (빈민)지역운동 사례집』, 도시

66 '서발턴' 역사 연구의 맥락에서 로컬리티와 근대 권력, 난민·이주민 문제의 연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성현(2023), 「관문 도시 부산과 '서발턴' 역사 연구의 필요성과 한계」, 『식당논총』 87집 참고.

빈민연구소.

이동현(2007), 「새로운 이주민들: 한독주택과 목화연립」,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 『시흥시사 8: 시흥의 도시공간, 도시민의 체험과 기억』,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정일우(2009), 『예수회 신부, 정일우 이야기』, 제정구기념사업회.

정동익(1989), 『도시빈민 연구』, 아침.

제 바오르(1982), 「'복음자리' 일군 청계천 사람들: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집단 이주기」, 『정경문화』 1982년 4월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 1권』, 동광출판사.

황병주(2007), 「복음자리 마을의 형성과 삶」,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 『시흥시사 8: 시흥의 도시공간, 도시민의 체험과 기억』,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26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5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ABSTRACT

The Growth and Evolution of Urban Poor Movements in the Siheung Area from the 1970s to the 1980s

Lee, Dongwon*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growth and evolution of the urban poor settlement community movement in the Siheung area, which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Bogumjari Village in 1977, followed by Handok Village in 1979, and Mokhwa Village in 1986. This movement represents an alternative housing initiative aimed at breaking the vicious cycle of poverty caused by the over-urbanization of Seoul, the formation of large-scale slum areas, and the hasty eviction policies that operated under a “de-invisibilization” approach. Je Jung-gu, John Vincent Daly, and others who led this movement discovered that in the shantytowns, the poor lived together, caring for one another, and they believed this to be the essence of true community and humanity. They were convinced that preserving and expanding this essence of community and humanity was vital, which is why they dedicated themselves to the relocation and settlement of evicted communities.

Unlike most urban poor movements that emerged and faded informally and spontaneously, the urban poor movement in the Siheung area wa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racterized by a certain degree of formality from the outset, thanks to support from religious groups and foreign aid organizations. Under the leadership of Je Jung-gu and John Vincent Daly, this movement uniquely expanded its collective identity while aiming to build a strong sense of community.

The process of forming a sense of “community” in the three villages vari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timing and conditions, and there were also various sources of conflict. However, an emotional bond and sense of solidarity as evictees and migrants operated among these villages. Despite their differences, they gradually evolved into a “unified regional community” and a key force in the urban poor movement and the broader citizens’ movement, with the Bogumjari community, Bogum Credit Union, and Jakkeunjari Hall serving as focal points.

Keywords Siheung, Je Jung-gu, John Vincent Daly, Urban Poor, Urban Poor Settlement Community Movement